

# 강진산 뽕잎·우리쌀로 만든 '뽕잎 막걸리' 인기



강진군 도암주조장(대표 박병현)에서 생산한 뽕잎 막걸리가 웰빙 주류로 각광 받으면서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 뇌졸중·동맥경화·소갈증(당뇨병) 등 탁월한 맛 배제해 맛이 시원하고 숙취 적어

예로부터 뽕잎은 각기병과 몸이 붓는 증세, 뇌졸중, 동맥경화, 소갈증(당뇨병) 등에 효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막걸리의 효소와 궁합이 맞는 대표적 식품이다. 강진에서 생산하고 있는 뽕잎 막걸리는 뽕잎을 건조 후 250℃ ~ 300℃에서 20분 볶아 녹차와 같은 방법으로 8일간 발효시켜 종전의 탁탁한 맛을 배제해 맛이 시원하고 숙취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원료곡으로 강진군 도암면 간척지에서 직접 생산한 강진쌀, 뽕잎, 지하 200m에서 끌어올린 깨끗한 물 등 좋은 재료를 사용해 전통 기법으로 기능성 막걸리를 생산해 내고 있다. 박대표는 "제대로 된 술맛을 내기 위해서는 원료를 아깝게 생각해서 안 된다. 좋은 술은 좋은 재료에서 나온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제품 개발

로 부가 가치를 높이고, 차별화된 제품 전략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친환경농업과 송승언 과장은 "전통적 기법과 지역에서 나는 쌀을 원료로 정성들어 만든 뽕잎 막걸리를 소비자분들께 적극 추천한다"며 "뽕잎 막걸리가 지역 특산품을 넘어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제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암주조장에서는 뽕잎쌀 막걸리 0.7ℓ는 1,200원, 1.5ℓ는 2,2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구입문의는 도암주조장(☎061-432-0018)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 완도군, 도서종합개발 사업 국비 99억원 투입 26개소 신규사업 추진

완도군은 도서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1년 도서종합개발사업에 2020년 사업비보다 13억 7,400만원 증가한 99억 600만원(국비 100%)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도서지역의 생활 기반시설 정비·확충으로 도서민의 복지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2개 부처가 협력해 추진한다.

2017년까지는 3차 계획이 마무리되었고, 2018년부터 2027년까지 4차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장기 계속사업이다. 완도군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2018-2027)은 총 사업비 1,180억 원이 책정되었다. 지난해에는 금일 화목지구 소규모 여항 정비 사업, 청산 슬로길 개선 사업 등 도서지역 소득 기반 확충과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33개소 사업(국비 85억 원)을 마무리했다.

2021년도는 총 45개소 사업을 진행하며, 전년도부터 이어지는 계속사업 19개소를 포함하여 신규 사업으로는 그동안 도서종합개발사업에서 배제되어 추진하지 못했던 소규모여항 개발, 마을 진입로, 관광지 정비 등 주민 생활 및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 26개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숙원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일부 사업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체 설계단을 운영하여 설계 용역비로 지출되는 예산을 절약, 주민 숙원 사업 등 민원 해결에 투자하여 예산 효율성도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도서종합개발 사업을 통해 수산물의 원활한 생산과 수송 및 도서지역 생활환경이 개선되어 주민 복지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도서지역을 활력 있고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진도 아리랑 쌀' 대명 쌀비치 리조트 납품...연간 140여t

### 진도 농산물 브랜드 향상과 농가 소득 증가 기대

진도군에서 생산된 쌀이 국내 대형 리조트인 소노호텔&리조트(대명 솔비치 리조트)에 납품된다. 12일 진도군에 따르면 매일 11ton씩 연간 140여ton(6억원 상당)의 진도 아리랑 쌀이 소노호텔&리조트 본점을 포함한 전국 22개 리조트에 납품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말 소노호텔&리조트 본사는 전국에서 쌀 납품을 요구하는 유명한 브랜드 18개 업체 중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친 후 진도 아리랑 쌀을 최종 선정했다. 또 소노호텔&리조트에 위치한 굿앤굿스(편의점)에도 진도쌀(1kg)이 판매될 예정이다.

진도군은 서울 SRT 기차역 판매점(2017년), 서울 종로구 농수특산물 판매장·광주광역시 유스퀘어 판매장(2020년) 등 기존 판매장에 더해 새로운 대규모 납품처를 확보함으로써 진도쌀 브랜드 향상은 물론 지역 쌀 농가의 소득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진도 아리랑 쌀은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인증 확대와 지난

2018년 준공된 최신식 미곡종합처리장 규모에 걸맞은 엄격한 품질 개선으로 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하고 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국내 최대의 리조트 기업인 소노호텔&리조트(대명 솔비치 리조트)에 진도 아리랑 쌀이 납품되어 매우 기쁘고, 최근 쌀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대형 납품처가 확보된 것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 해남군, 경기 부양위해 예산집행 가속도 2934억원 규모 상반기 신속집행...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해남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연초부터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나서고 있다. 올해 신속집행 대상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시설투자사업과 각종 민간보조사업, 물품구입비용 등으로, 총 4,657억원이며, 이중 63%인 2,934억원을 상반기에 조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기동취재본부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권장하는 자치단체 신속집행 특례를 적극 활용하고, 사업별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관리해 나가게 된다. 또한 사업추진시 발생할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군정역점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는데 걸림돌이 없게 할 예정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한발 빠른 재정집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군정 주요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장흥군, 야생 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실시

### 철망 울타리·전기 목책기 등 시설 지원 9000만원 예산 투입



장흥군은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야생 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철망 울타리, 전기 목책기 등의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데 9,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보조금은 농가당 최대 1,000만 원이며, 사업비의 일정 비율(40%)을 농가가 부담함으로써 농가의 책임 있는 시설물 관리가 요구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오는 1월 22일까지 토지 소재지의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야생 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람과 야생 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흥=김도영기자

#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